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입장'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신학'임을 느낄 수 있었다.

### 헤어지고

당시 학도호국단 학생대장(학생회장)을 했던 이영재 목사는 늦게서야 영국에 유학을 하고 얼마 전 학위를 받았다. 오용식 목사는 무주에서 실업극복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 정상시 목사는 안양에서 우직하게 민중교회를 하고 있다. 나도 이곳 안산에 와서 안산노동교회와 들꽃 피는마을을 하며 산지 벌써 20년에 이르고 있다. 당시 유인물을 작성하고 주변정세를 가장 민감하게 읽어내던 학보사 편집장이었던 김하범은 요즈음 여러 가지로 사는 것이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날선 가슴을 지니고 있다.

사실 감옥에 간 우리들보다 학교에 남아서 옥바라지 해주고, 친구들을 감옥에 보내고 학교에 남아있다는 자책감으로 우리보다 더 힘들어 하며 술을 마셔대야 했던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해야겠다. 감옥으로 간 우리들보다 남아있던 친구들이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 '긴급조치9호'는 선물



박인혜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75학번.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장, 인천여성연화 회장, 민주와통일로기는인천시민연대 공동대표, 한국여성연화연합 상임대표(현)

1975년 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국가가 내게 준 일생일대의 선물은 '긴급조치9호'였다. 나는 '긴급조치9호'가 내 인생에 미칠 영향과 의미를 짐작도 못한 채 대학생활을 시작하였다. 채플이 열릴 때마다 선배들이 뛰어나와 구호를 외치고 끌려나가는 일이 반복되고 휴교령까지 내려졌지만 나는 갓 시작한 대학생활이 즐겁기만 했다. 그러나 그 행복과 '긴급조치9호'는 전속력으로 마주보고 질주하다가 정면으로 충돌하고야 말았는데 바로 1978년 5월 4일이였다.

1977년 9월 나는 학교호국단 종교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때 나는 막 학생운동을 하려고 결심한 터여서 임명을 거부하였으나 곧 생각을 바꾸었다. 당시 이대는 형식은 학교호국단 체제로 바뀌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학생회 시절의 자율성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나는 이 점을 활용하기로 했다. 나는 종교부 사업으로 세미나모임을 만들어 공부하는 한편(이 모임은 기독교학생회로 발전하였다) 지하에 잠적해 있던 서클들과 만나는 통로로 활용하였다.

그러던 중 1978년 새 학기가 되자 대학기는 심상치 않게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조심스럽게 만나오던 우리들은 무언가 해야 한다는 역사적 직감을 공유하고 의논하던 중 '4.19기

넘 학술대토론회 라는 형식을 빌어 합법성을 가진 공개적인 반정부 비판을 하자는 데 합의하였다. 지하서클들은 정치, 경제 각 분야의 주제를 정하여 발제와 토론을 하고 학도호국단은 주최자로서 재정과 조직, 홍보를 맡았다. 나는 문예부장(오현주), 생활(?)부장(한경희)을 설득하여 함께 주최 부서가 되기로 합의하였다.

학술대토론회가 열린던 문리대 대강의실은 여러 대학에서 온 남녀학생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고(약 500여 명) 긴급조치9호 발동 이후 처음 열린 공개집회라는 감동에 모두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특히 우리 국문과 친구들은 북과 팽과리 등을 동원하여 신나게 응원해 주었다(나는 그 전날과 친구들에게 내일 행사 이후 나는 구속될지도 모른다고 귀뜸을 해주었기 때문에 친구들은 더욱 열심히 나를 향해 북을 두들겨댔다).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숨어 세미나 하면서 나누었던 정부규탄 이야기들을 '학술'이라는 미명하에 거침없이 쏟아내었다. 학술대토론회는 대성공이었고 다행히 나는 연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덕분에 그날부터 안기부의 시찰 대상이 되었고 주임교수님의 골치덩어리가 되었다. 나중에 들으니 안기부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박인혜 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애를 먹었다고 한다.

토론회 후 우리는 학내분위기가 성숙되었다고 평가하고 내쳐서 대대적인 교내시위를하기로 하였다. 4학년인 최정순, 김광희 등이 역할분담을 하고 시위를 준비하였다. 나는 늦게 배운 학생운동이니(1, 2학년 때는 열심히 대학의 낭만을 즐겼고 3학년 봄에 운동을 시작했다) 남보다 열심히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행동대를 자처하였고, 광희는 후배들을 맡고, 정순은 1차 시위 후 뒤처리와 2차 시위를 맡기로 하였다. 나는 유인물 제작을 맡고 각 서클이 나누어 교내 요소요소에 유인물을 배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나는 구속될 각오를 하지만 정순이는 끝까지 도피하여 훗날을 도모하기로 하고 내가 잡히면 모든 책임을 정순이에게 미루기로 하였다.

1차 시위를 맡은 나는 다시 현주와 경희와 의논하여 동일방직 여공들에 대한 분노세례를 규탄하고 '긴급조치9호'의 철폐를 요구하는 시국성명서를 제작하였다. 내용은 정했으나 유인물을 만드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자 경희가 자신이 다니는 봉천동성당에 가서 유인물을 만들자고 아이디어를 냈다. 우리는 밤에 성당에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저녁에 성당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이대 담당 안기부 요원으로 부터 만나지는 전화가 왔다. 나는 우리 일이

들통난 줄 알고 앞이 캄캄해졌으나 일단 부딪혀보기로 했다. 다행히 단순한 정보수집활동이었다. 그와 헤어진 후 그 길로 봉천동성당으로 가서 밤새 등사판을 밀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유인물 봉치를 힘겹게 들고 성당문을 나서다가 장덕필 주임신부님에게 들키고 말했다. 신부님은 아무 말씀도 않고 유인물 봉치를 대신 들어다가 버스에 올려주셨다. 신부님의 표정은 마치 퍼져오르던 아침 햇살처럼 따뜻했다. 우리가 구속되고 성당의 등사판은 증거물로 압수되었고 신부님은 증인이 되어야만 했다. 그때도 신부님은 당당하게 "내가 성당과 등사판을 빌려주었다"고 하셨다. 그 증언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는 주거침입 죄가 추가되었을 것이다.

5월 4일, 채플이 열리기 앞서 우리는 대강당 화장실로 가서 후배들을 만나 유인물을 나누어 주고 이내 학교를 빠져나왔다. 갑자기 갈 곳이 없어졌다. 나는 도망을 간담시고 부산 해운대에 가서 하루를 잤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고립감에 너무도 막막하여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리고 5월 8일, 어머니날, 일요일 아침 온식구가 함께 아침을 먹고 있는데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들어서는 모양이 저승사자 같았다.

서대문서에 가니 이미 잡혀온 이대 학생 30여 명이 북적이고 있었다. 4일 현장에서 잡힌 후배들부터 시작하여 제일 마지막에 잡힌 나까지 30여 명 되었다. 후배들이 4일이나 견뎌주었구나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미처 자리도 잡기 전에 안기부 요원이 혈레벌떡 달려왔다. "아니 네가 이럴 수가 있어?" 하고 그는 외쳤다. 나도 속으로 "내가 뭘?"하고 외쳤다. 그는 나를 만나고 나서 별로 주의할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 일로 그는 파면이 되었다고 한다.

조사를 받으면서 나는 약속대로 정순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었다. 그런데 며칠 후 정순과 김안나가 잡혀왔다. 황급히 사실은 우리가 함께 했노라고 반복했지만 허사였다. 그래서 정순에게는 '교사죄'가 더 붙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우리는 정순이의 교사죄를 벗기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아무도 우리 말에 귀기울여주지 않았다. 사실 1차에 잡혀온 우리들은 모두 여러 여러하고 순진하게 생겼으나 정순이는 덩치가 좀 있고 경상도 사투리에 한눈에 봐도 투사같이 생겼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방청석에 있던 가족들조차 정순이의 교사죄를 확신하는 눈치였다. 정순이는 분통이 터져 씩씩거렸다. 결국 항소심에서 우리에게

계는 1년이 언도되었으나 정순이는 1년6개월의 형을 받았다. 그러나 11개월 후 형집행정지를 받아 나올 때는 같이 나왔다.

당시 서대문구치소 여사에는 우리 외에도 서울여대 김숙임, 숙대 석원정, 고대 이해자 등 20여 명이 있었다. 밤마다 '통방' 을 하면서 쌓은 우정은 지금도 변치 않고 있다. 바로 '긴급 조치9호' 가 준 선물이었다.

## 그때가 어떤 때였는데



박태경\_ 이화여대 사회학과 75학번. 이대학보 기자, TBC-TV 프로듀서, KBS 심의위원(현)

매년 이화여대의 부활절 채플은 당국의 요주의 행사였다. 1978년 4월,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구호를 시작으로 하여 대강당 앞의 계단에는 수천 명의 학생들이 앉아서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한 시간쯤 흐른 후 누군가가 옆구리를 쿡 찌르며 한쪽 구석으로 몇 명을 불러냈다. 우리는 그날 시위를 주도했던 사회학과 4학년 최정순 빼들리기 작전을 시작했다. 대강당 계단에서 세 명의 친구들이 정순을 둘러싸고 슬슬 빠져나와 강당 뒤쪽의 학생회관 사이 길을 따라 이대부속초등학교로 가는 골목길로 나왔다. 지금은 그 사이에 국제교육관과 이화삼성교육 문화회관이 들어서서 위용을 자랑하고 있지만, 당시 그 사잇길은 주로 이대 교수들의 집이 있는 소박한 골목이었다.

그런데 정순을 데리고 나오는 길이 이상할 정도로 한가했다. 아직도 대강당에서는 시위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정순의 도피로는 쥐새끼 한 마리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했다. 정순을 데리고 나오는 길에서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았다.

골목에 도착한 우리들은 우선 정순의 안경을 벗기고 재킷도 다른 친구 것과 바꿔 입혔다. 모인 친구들의 주머니를 터니 한 3만원정도 나왔던 것 같다. 정순이는 이것을 도피자금으로